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2		제 [] 선택
----	--	------	--	---	--	-------------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경험적 탐구를 통해 도덕 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고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면밀하게 탐구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 추론의 논리 구조와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 ③ (나):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④ (나):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보편적인 도덕규범들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치는 먼저 명분을 바로잡는 것[正名]에서 시작된다. 군자가 명분을 바로잡으면 반드시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반드시 행할 수 있으니, 군자는 말에 있어 구차한 것이 없을 뿐이다. 명분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예악(禮樂)이 세워질 수 없다.

— <보 기> —
 ㄱ. 인(仁)의 실현을 위해 사욕을 극복하고 예를 따라야 한다.
 ㄴ.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따른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ㄷ. 시비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 무위(無爲)로써 다스려야 한다.
 ㄹ.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을 해아리는 서(恕)를 행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으면 감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자는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가장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을: 죽음은 현존재 자신이 떠맡아야 할 고유한 존재 가능성이자, 언제 있을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다. 이와 같은 죽음을 향해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현존재는 비본래적 삶으로부터 벗어나 본래의 자기로 귀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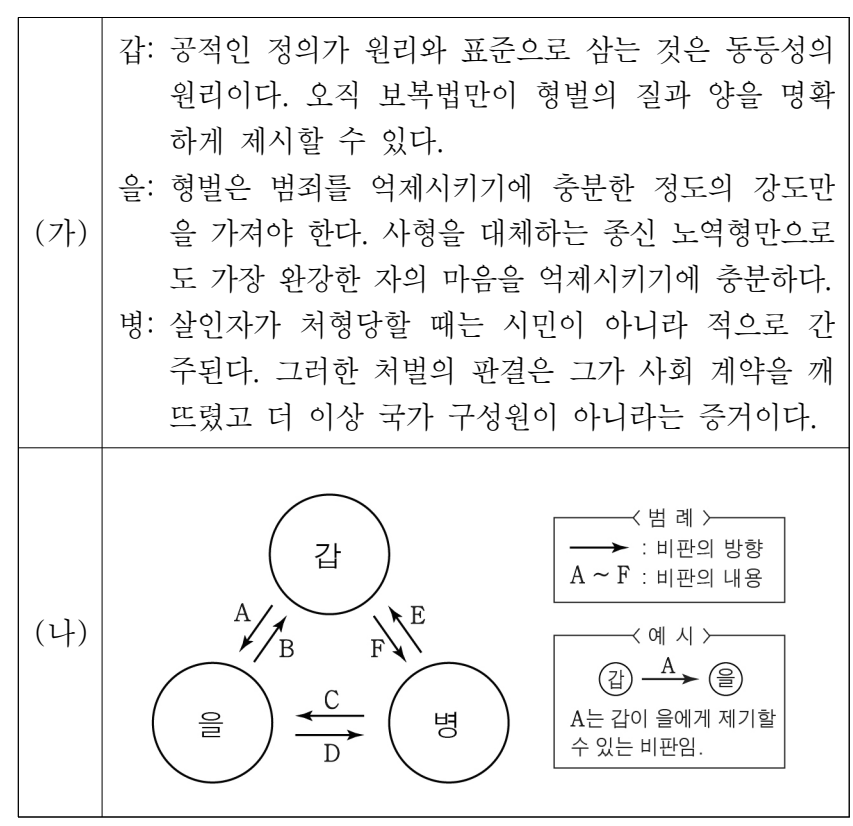
- ① 갑: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 ② 갑: 죽음은 인간이 회피해야 할 가장 큰 고통이며 악이다.
- ③ 을: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자각할 수 있다.
- ④ 을: 삶의 유한성을 직시함으로써 참된 자기를 회복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바람직한 삶을 위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4.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보내준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지요? 사랑의 의미는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며, 주는 행동을 통해 우리는 생명력을 경험하며 스스로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란 상대방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책임 있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존경이 없다면 사랑은 지배나 소유욕으로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일이다.
- ② 사랑은 자신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다.
- ③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능동적 관심이 아니라 수동적 감정이다.
- ④ 사랑을 주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 ⑤ 사랑은 상대방의 개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사형은 살인이라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임을 간과한다.
- ② B와 D: 살인자가 받아야 하는 유일한 형벌은 사형임을 간과한다.
- ③ C: 형벌에 대한 정당성은 사회 계약으로부터 도출됨을 간과한다.
- ④ E: 사형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국가의 존립과 살인자의 존속은 양립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6.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인간은 가족을 통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며, 사회 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규범을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가족 해체 현상으로 인해 가족 간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기존 가족 윤리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고 가족 해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자유친(父子有親)과 부자자효(父子慈孝)의 의미를 되새겨 화목한 가족 관계를 강조하는 전통적 가족 윤리를 계승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조화롭게 포용할 수 있는 현대적 의미의 가족 윤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① 가족은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
- ② 가족의 형태를 획일화함으로써 가족 윤리를 재정립해야 한다.
- ③ 가족 간 유대감 약화는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④ 전통적 가족 윤리는 가족 해체 현상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 ⑤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7.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그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갖는다. 인간 또한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생명체와 긴밀하게 연결된 상호 의존 체계를 구성한다. 을: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의 정복자에서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며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 <보 기> —
- ㄱ. A: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체를 해쳐서는 안 된다.
 ㄴ. B: 생명이 없는 개체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ㄷ. B: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
 ㄹ. C: 생명 공동체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8. 그림의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전통 윤리는 '여기'와 '지금'에 관련된 것으로, 현대 기술로부터 산출된 위협적이고 거대한 규모의 행위들을 파악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윤리는 '좋은'과 '나쁜'을 결정할 때,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미래, 실존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악에 대한 인식이 윤리의 나침반 기능을 수행하여 책임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 ① 기술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공포보다 희망에 주목해야 하는가?
- ② 책임질 수 있는 능력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가 도출되는가?
- ③ 현세대는 사후적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 ④ 인간의 책임 범위를 자연 전체에 대해서까지 확대해야 하는가?
- ⑤ 미래 세대의 실존에 대한 책임은 현세대의 무조건적인 의무인가?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 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의복과 음식은 검소한 것을 법도[式]로 삼아야 하는데, 조금만 법도를 넘어도 씹씹이에 절도[節]가 없어져 버린다.

- <보 기> —
- ㄱ. 지혜로운 선비는 청렴을 교훈으로 삼고 탐욕을 경계한다.
 ㄴ. 관청의 재물로 사사로이 남을 돕는 것도 수령의 역할이다.
 ㄷ. 청렴은 수령이 지녀야 할 모든 선의 원천이자 덕의 근본이다.
 ㄹ. 현명한 수령은 절약의 대상을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에 호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들 간의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정당하게 알리는 것이다. 이때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을: 시민 불복종을 통해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것을 중단하고자 할 때 자문해야 할 도덕적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중단하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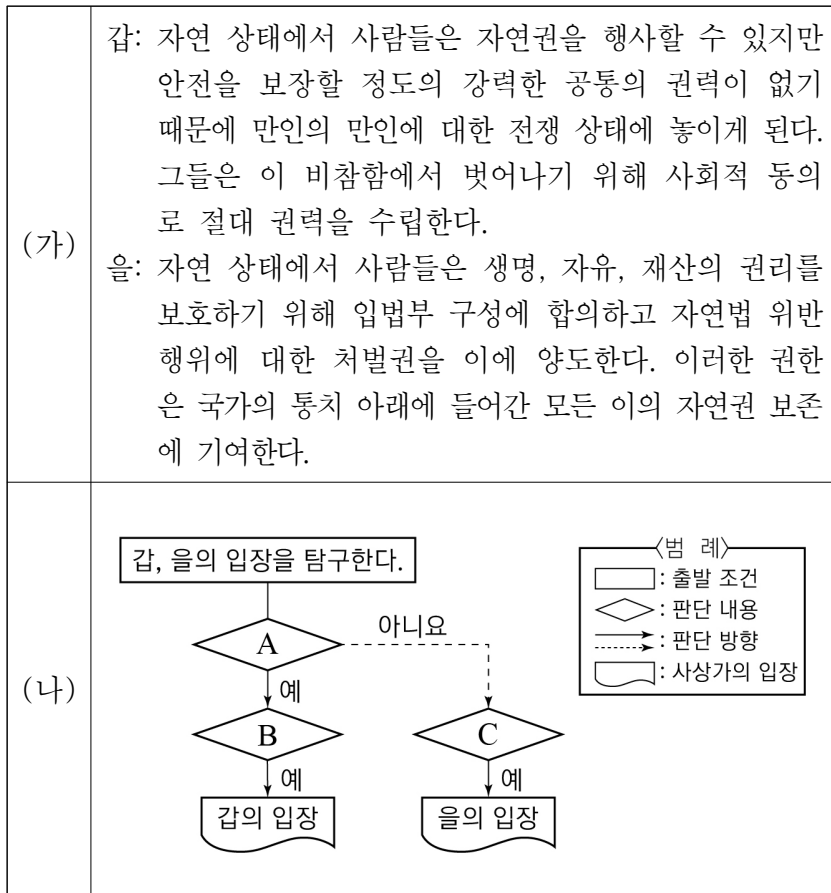
- ① 갑: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모든 법을 대상으로 행해져야 한다.
- ② 갑: 시민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내에서 성립될 수 있다.
- ③ 을: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④ 을: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복원하려는 정당한 시도이다.
- ⑤ 갑과 을: 시민 불복종은 위법적이지만 부정을 개선하기 위한 행위이다.

1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늘날 생명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전자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선천성 유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학적 효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을: 맞습니다. 체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치료는 선천성 유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미래 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갑: 아닙니다.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를 통해 미래 세대는 다양한 유전 질환들을 물려받지 않음으로써 질 높은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을: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의 허용은 인류의 유전학적 개량을 위한 우생학을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치료는 체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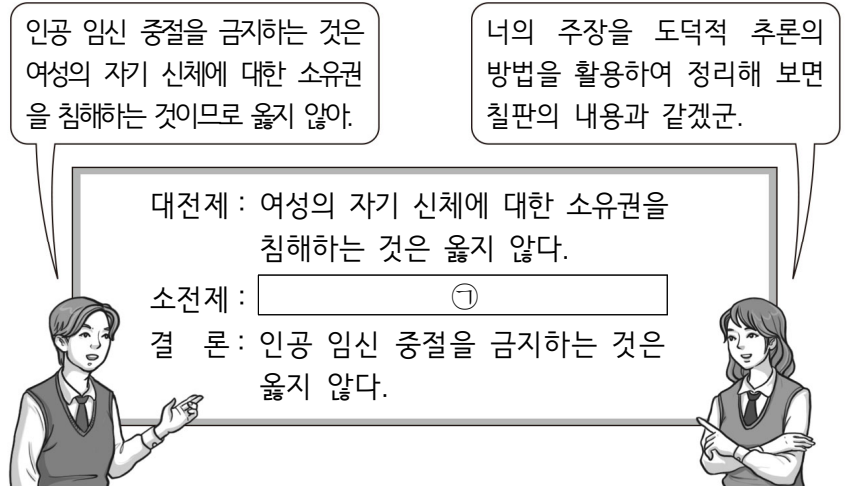
- ① 유전자 치료는 미래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② 유전자 치료 기술은 의학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지니는가?
- ③ 생식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는 금지되어야 하는가?
- ④ 선천성 유전 질환은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치료될 수 없는가?
- ⑤ 유전 질환 극복을 위한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12.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는 동의에 근거하는가?
- ② A: 시민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에 대해 저항권을 갖는가?
- ③ B: 국가 권력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분립되어야 하는가?
- ④ C: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위를 가진 재판관이 존재하는가?
- ⑤ C: 입법부의 권력은 자연권 보장을 위한 단지 선택된 권력인가?

13. 그림은 수업 장면이다.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태아는 출생 이후에 비로소 인간의 범주에 포함된다.
- ② 태아는 임신부의 신체에 속한 단순한 세포 조직에 불과하다.
- ③ 태아는 존엄한 생명이므로 여성의 소유물로 취급될 수 없다.
- ④ 태아는 잠재적 인간일 뿐 성인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 ⑤ 태아의 생명권은 임신부의 자율적 선택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다. 기술이 선한지 악한지는 인간이 기술로부터 무엇을 만들어 내는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달려 있다.
 을: 기술을 기술적인 어떤 것으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면 기술의 본질에 다가설 수 없다. 우리가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다.

<보 기>

- ㄱ. 갑: 기술 그 자체는 윤리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 ㄴ. 갑: 인간의 개입 없이는 기술이 인간의 삶에 해악을 끼칠 수 없다.
- ㄷ. 을: 기술을 가치중립적 도구로 볼 때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 ㄹ. 갑과 을: 기술의 활용 방안에 대한 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딸 또는 사촌이고, 이 도시나 저 도시의 시민이다. 나는 이 친족, 저 부족, 이 나라에 속한다. 이처럼 나는 내 가족, 내 도시, 내 부족, 내 나라의 과거에서 다양한 빛과 유산을 물려받으며 조상들의 기대와 후손으로서의 의무도 물려받는다. 이것들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

- ① 자연적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애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 ②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덕을 실천해야 한다.
- ③ 타고난 성품인 덕을 발휘하여 도덕적으로 행위해야 한다.
- ④ 구체적 상황과 무관하게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야 한다.
- ⑤ 행위자의 유덕한 성품보다 행위의 도덕성에 주목해야 한다.

1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의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성은 행위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달려 있다.

<사례>

하룻길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같은 반 친구를 목격한 A는 친구를 돕지 않았을 때 자신이 방관자라는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마지못해 도와주었다.

- ① 다수의 행복 증진을 위한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결과적으로 친구를 도운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무조건적 명령에 따른 행위이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
 ④ 자연적 경향성을 따른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
 ⑤ 선의지로부터 비롯된 행위가 아니므로 도덕적 행위로 볼 수 없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국가를 이루는 세 계층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정의이다. 반면에 세 계층 사이의 참견이나 상호 교환은 국가에 대한 최대의 해악이며, 이것을 악행이라 불러 마땅하다.

을: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를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일어난다. 이에 선왕(先王)은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하고, 각자 직무를 수행하여 그 마땅한 바를 얻게 하였다.

<보 기>

- ㄱ. 갑: 생산자 계층의 사람들은 절제의 덕을 발휘해야 한다.
 ㄴ. 을: 사회적 직분은 각자의 덕과 능력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ㄷ. 을: 타고난 본성을 회복하여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한다.
 ㄹ. 갑과 을: 통치자는 자신의 직분 외에도 모든 일에 능숙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분배는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그 사회의 모든 사람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순수한 가상의 상황인 원초적 입장하에서 합의를 통해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을: 분배가 정의로운 충분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로 정의롭다.

- ① 갑: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의한다.
 ② 갑: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을: 과거 상황이나 행위가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정당화할 수 있다.
 ④ 을: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를 통해 소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갑과 을: 개인의 천부적 재능 자체는 공동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해당하는 것에만 '✓' 표시를 한 학생은? [3점]

삶의 주체란 단순히 살아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쾌락과 고통, 욕구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복지와 목표를 추구하며 삶을 영위하는 개체이다. 최소한 몇몇 포유류는 인간과 같은 도덕 행위자는 아니지만,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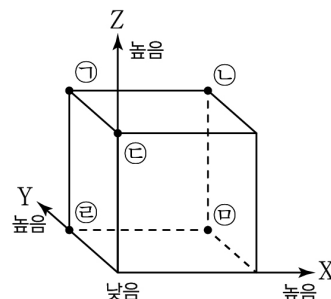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입장					
모든 동물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	✓		✓		✓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만으로 어떤 존재의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지 않는다.		✓		✓	✓
동물 학대가 그릇된 근본적 이유는 인간의 도덕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			✓	✓
쾌고감수능력은 어떤 개체의 도덕적 지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독창적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재조합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창의성이 높은 결과물을 스스로 창출하는 창작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만 부여했던 저작권을 인공지능에 확대하여 미래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조합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직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는 다양한 분쟁을 야기하고 미래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 X: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정도
- Y: 창작의 주체를 인간으로 한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정도
- Z: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